섬 식수난 완도, 해저관로 뚫는다

433억 투입 해남까지 31.1㎞ 추진…보길·노화도 등 광역상수도 공급 기대

완도군이 해마다 극심한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화·보길 주민들을 위해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해저 관로 설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노화·보길면 인구는 7889명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 2일 급수, 8일 단수 시행으로 주민 고통이 심각하다.

이마저도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9월 13일까지만 급수가 가능해 자칫 추석 명절도 편히 지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군은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4억원을 투입해 보길 부황제 아래에 지하수 저류지 댐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가뭄 장기화로 지하수도 말라 해저 관로를 통한 광역 상수원 물 공급이 시급하다고 군은 전했다.

군은 지하수 저류지 설치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해저 관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자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내년부터 타당성조사 및 실시 설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군은 433억원을 투입해 육상 21.9㎞, 해저 9.2㎞ 등 총연장 31.1㎞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노화, 보길, 넙도, 백일도, 흑일도, 마삭도 주민들의 물 부족 문제가 완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가뭄이 지속되고 여름철이 지나면 갈수기로 접어들 것에 대비해 관내 전체 수원지를 대상으로 생활용수 취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뭄 대책 예비비를 추가 확보해 급수 차량 증차 및 수송 철부선 운항 횟수를 늘려 생활용수를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원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물 부족 사태로 섬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중한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광역상수도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 서망항 '가을 꽃게' 반, 관광객 반

적조 없는 청정해역 상품성 입소문…하루 위판량 8~10t 경매가 kg당 최대 1만8000원

전국 꽃게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진도 서망항이 제철 맞은 가을 꽃게로 풍어를 이루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조도면 해역에는 매일 20여 척의 어선이 출어해 척당 500kg을 잡아 하루 위판량 8~10t을 올리고 있다.

진도군 통발협회 김영서 어민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진도 앞바다는 가을 꽃게가 풍어를 이루고 있다"며 "9월 중순부터 더 많은 양의 꽃게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도군수협을 통해 위판된 진도산 꽃게는 다른 지역보다 상품성이 좋아 현재 kg당 수협 경매 가격이 1만 5000원~1만 8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냉수대가 형성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한 진도 조도면 해역에는 갯바위 모래층으로 형성돼 꽃게의 서식지로 제격이고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해역이다.

진도군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바다 모래 채취를 금지하면서 꽃게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으며, 매년 1억원 이상 꽃게 치어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오고 있다.

진도 서망항 위판장에 나온 꽃게.

진도군수협 관계자는 "제철 맞은 가을철 진도 꽃게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진도 서망항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영광군 '마을이 학교다, 마을이 미래다' 워크숍

지역 교육의 희망을 쓰고 있는 '마을학교'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워크숍이 영광에서 열렸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영광마을학교네트워크가 최근 연한가지마을학교 서로마을 강당에서 '마을이 학교다! 마을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마을교육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김춘곤 영광교육지원청장과 마을학교 관련 전남도교육청 산하 담당자, 영광지역은 물론 인근 마을교육공동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영광군에서는 불갑 상사회피는마을학교, 백수 놀마을학교, 대마 연한가지마을학교, 영광 청연마을학교, 묘량 깨움마을학교 등 5개 마을학교가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허성균 곡성미래교육재단 상임이사가 '전남 교육의 미래와 마을교육공동체'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강연에서 허 상임이사는 "현장에서 살면서 진행하는 교육이 진짜다"고 강조하고 교육협치의 사례로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의 아이 성장에 집중하는 가정, 학교, 마을 구축전략을 소개했다.

강연 후에는 마을학교 관계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마을학교 프로그램의 놀이 교육 시연도 진행됐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현대삼호중, 외국인 사고 예방 '안전협의체' 발족

현대삼호중공업이 사내 협력회사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발맞춰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회사 지원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협의체'를 공식 발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이 협의체는 생산과 안전보건 임원 주관으로 연 2회 회의를 열어 안전보건과 관련한 외국인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협의체에는 베트남과 우즈베크, 네팔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직접 챙기고 나선 데에는 향후 비자 제도 완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해 나가기 위해서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내국인보다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삼호중에는 현재 사내 협력회사에 1500명가량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500명가량의 추가 유입도 예상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 "폐자원, 새 제품으로 교환하세요"

폐전지·종이팩 제로웨이스트 물품 교환

신안군이 폐전지 등을 가져오면 제로웨이스터 물품으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신안군은 다음달 1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폐전지와 종이팩을 생분해되는 칫솔 등 제로웨이스트 물품으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전지는 수은·망간·아연, 종이팩은 천연펄프가 주원료인데 무심코 버려지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원인이 된다.

이번 사업은 배출자에게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 분리배출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유용 가능한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환방법은 군민이 폐전지 또는 종이팩을 규격에 관계없이 최소 10개 단위로 군 세계유산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예산 소진시까지 개수에 따라 보상한다.

종이팩의 경우, 씻고, 펼치고, 말려서 크기별 묶음 후 제출해야 한다. 두유·소주팩 등 알루미늄박과 황색펄프가 사용된 멸균팩은 재활용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제도 확대 시행, 서울특별시 노원·마포구와의 아이스팩 협약 체결, 버려지는 현수막 새활용, 헌 옷 수거 경진대회 개최 등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서해해경, 추석 해양안전관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코로나19 장기유행으로 여객선·도선 이용객 수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은 전망했다.

최근 3년간 관내 추석연휴 여객선, 도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평일 대비 각각 87.0%, 3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선, 낚시어선 1일 평균 이용객은 평일 대비 각각 104.6%, 39.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청은 여객선과 도선을 이용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은 ▲다중이용선박·연안해역·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 선박교통관제 강화 ▲ 해양사고 긴급대응태세 강화 ▲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등을 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은 유·도선을 대상으로 해상안전 기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순찰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